


보 도 자 료

	◆ 2024. 6. 18. (화) 배포
	◆ 총 3쪽 (본문 2쪽, 붙임 1쪽)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	강민구 홍보실장 ☎ 032-770-8631 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☎ 032-770-8637

극지연구소-LG전자 MOU 체결

- 극지연구소(소장 신형철)는 LG전자(대표이사 조주완)와 17일(월) 서울 금천구의 LG전자 가산 R&D 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협약은 극지역 환경보호와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 소재 공동연구가 주요 목적이다. 협약식에는 신형철 극지연구소장과 김영석 LG전자 H&A기능성소재사업실장 등 13 명이 참석했다.
- 이번 협약에는 ▲극지역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▲환경오염 저감 소재의 극지 현장 테스트 및 항균력 검증 ▲공동연구 관련 캠페인 및 홍보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담겼다.
- 이번 협약에 따라 LG전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균 기능성 유리 소재와 수용성 유리 소재를 제공하며, 극지연구소는 극지 현장에서 해당 소재의 성능을 시험하고 연구 개발하는 역할을 맡는다.
- 우리나라는 남극에 세종과 장보고, 두 곳의 과학기지를 운영 중인데,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물자 보급에 제약이 따르고 엄격한 환경 기준이 적용된다. LG전자의 소재는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인체와 환경에

친화적인 물질이면서 분말이나 구슬 등 다양한 형태로도 제조 가능해 남극의 특수한 조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, 극지연구소 도학원 박사를 책임자로 하는 1억 원 규모의 "친환경 기능성 소재(수용성 유리 소재) 제품의 해양 및 극지환경 적용 가능성 연구"를 시작했다. 연구팀은 남극기지 실험실의 청정도를 높이고, 남극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.
- LG전자는 신사업 및 글로벌 B2B 성장 동력으로 기능성 유리 소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, 항균 기능성 소재는 최근 플라스틱 글로벌 전시회 'Chinaplas2024' 에서 올해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.
-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"기후변화 문제에서 남극 연구는 대체할 수 없는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과학자들의 남극 방문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."라며 "우리는 남극에 머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, 이번 MOU도 남극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"고 전했다.
- LG전자 김영석 H&A기능성소재사업실장은 "LG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소재 솔루션을 제공할 것"이라며, "앞으로도 해양 및 극지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" 라고 전했다.

붙임. 극지연구소-LG전자 MOU 체결식

